

제21대 대선 ‘전북발전 23대 핵심과제’ 제시

전북상협, 지역 상공인들의 낙후·소외 극복 위한 염원·간절함 담은 핵심 현안 촉구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염원과 간절함을 담은 핵심 현안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전북의 핵심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가균형발전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교통 및 산업인프라 확충 △산업계 혁신전환과 성장 촉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3개의 세부 공약과제를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국가적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핵심 추진과제로는 △2036 하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나후전북 탈피를 위한 국가예산 대폭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공공·행정기관 설치 △농협중앙회 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국립 공공의대 남원 설립 등 7개 과제가 제시됐다.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분야에는 △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염원과 간절함을 담은 핵심 현안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립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첨단소재 기반 차세대 K-방산하브 구축 △의료용 헬프 산업 생태계 구축 특화단지 조성 △국립 지덕권 산림약용식물 특화산업화 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등 5개 과제가 포함됐다.

교통 및 산업인프라 분야에서는 △

새만금국제공항 조속건설 및 공항 규모 확대 △KTX증편 및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운행 확대 △전북 핵심 간선 교통망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대량반 개정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 및 계획 반영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국가 재정사업 전환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등 총 6개 과제를 중점 건의했다.

산업계 혁신전환과 성장촉진 분야에서는 △익산 왕궁 K-에코토피아 국정 과제 선정 지원 △기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새만금 글로벌 식품하브 조성 지원 △중소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K-수소상용모빌리티 초격차 허브 지정 등 5개 과제를 제안했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과 예산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나 발전의 기회를 반반이 놓쳐왔다"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전북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약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상공인들은 앞으로도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들의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실행에 앞장설 것"이라며, "각 대선 후보들이 전북의 절박한 목소리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이고 실현 가능한 약속으로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축사 냉방·환기시설 미리 점검하세요

농진청, 올 여름 평년보다 높을 확률 60%·열대야도 증가 전망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 냉방·환기시설을 사전에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60%에 이르며, 열대야 일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0도 높았고, 열대야 일수도 24.5일로 급증해 축사 현장에서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

가축은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사료 섭취량 감소, 면역력 저하, 생산성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사할 수도 있다.

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형태에 따라 적절한 냉방·환기 장비를 설치하고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개방형 축사에서는 송풍 시설, 안개 분무 시설 등 주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한다. 이때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무창형 축사에서는 냉각판 환기 시설 에어컨 등 주요 장비와 벨트·셔터 등 부품의 노후 여부를 점검해 교체하고 정비 효율을 높인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 위험이 큰 정전 사고에도 대비한다. 무정전 전원장치(UPS), 정전 경보기, 비상 발전기 등을 미리 점검하거나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육계 농가에 한해 스스로 축사 단열이나 환기 상태를 무료로 점검할 수 있는 에너지부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희망 농가는 축사로(chuk.saron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길원 스마트축산환경과장은 "최근 몇 년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2025년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개최

제도개선 추진 현황 공유·활성화 3개년 계획 이행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제1차 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조합 활성화 방안 등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으로 제정묵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위촉됐으며,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총 18명의 위원 이 새롭게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공동행위 허용 확대 △협의요청권 도입 △설립요건 완화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 경과가 보고됐으며,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5~’27)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조합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정묵 위원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협동조합의 성장·발전을 위한 법·제



중기중앙회는 15일 '2025년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는 위원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앞으로도 활발

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사장님을 위한 필수 법률 가이드’

노란우산, ‘성공을 부르는 소상공인 현장 클리닉’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 공제 기업을 소개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상으로 성공을 부르는 소상공인 현장 클리닉'을 개최한다.

현장 클리닉'은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으로 해소를 위해 경영지원단의 여러 전문가들(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과 함께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1:1로 직접 만나 경영상담을 하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고객 서비스 행사이다.

2025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번 현장 클리닉에는 특별히 △한국형 장사의 법 김유진 작가를 초청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매출 증대 20가지 전략' 특강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소개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의 대표 정진숙 변호사가 '2025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법률가이드'를 주제로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주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법적 어려움과 관련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요즘 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 중에 마주하게 되는 법률·세무·노무 등 다양한 문제들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클리닉 서비스를 지역별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성공을 부르는 소상공인 현장 클리닉' 행사는 5월 서울(여의도)과 경기를 시작으로 8월 제주, 9월 광주/전주/대전/전남/부산/창원/대구/청주 등 전국 지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작가업자 179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 목돈마련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 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문의는 콜센터(☎1666-9988) 또는 은행지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